

노순택 개인전

《검은 깃털》



〈검은 깃털 #CGC2401〉

2016

장기보존용 잉크젯 안료프린트

162x108cm

Ed. 1/9

오쇠리

전시제목 : 노순택 개인전, 《검은 깃털》

전시기간 : 2022년 06월 22일(수) – 2022년 07월 17일(금)

전시장소 : 학교재

[오프라인]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출 품 작 : 총 19점

문 의 : 02-720-1524~6

답 당 김연윤 claire_7942@hakgojae.com

학교재 오룸(OROOM)

[온라인]

(online.hakgojae.com)

총 21점

1. 전시 개요

학교재는 6월 22일(수)부터 7월 17일(일)까지 노순택(b. 1971, 서울) 개인전 《검은 깃털 *Shades of Furs*》을 연다. 지난 2012년 《망각기계》 이후 10년 만이다. 노순택은 분단체제에서 파생된 정치적 폭력과 갈등의 문제를 사진과 글로 엮어왔다. 그가 펼쳐내는 화면엔 현장의 격렬함과 더불어 독특한 미감이 담겨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작업한 〈검은 깃털〉 연작을 비롯하여 19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모두 역광사진이다. “무난한 사진의 평범한 원칙”에 따르면 역광은 사진촬영에서 가급적 피해야 할 조건으로 여겨진다. 피사체의 세부가 어둠에 묻히기 쉽기 때문이다. 검은 윤곽 안에 세부가 갇힌다. 극단적인 농담(濃淡)의 대비가 남는다. 작가는 “극단주의자의 뻘한 화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며, 동시대 사회상을 역광에 투영했다. 윤곽에 갇힌 세부의 무게를 가늠해 보자는 제안일까. 노순택은 작업노트에 이렇게 썼다. “깃털(세부)이 윤곽에 갇혔다 해서, 무게가 달라졌는가. 무엇으로 무게를 가늠하는가.”

2. 전시 주제

노순택의 '사진 매체 바라보기'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둔 '스타일 탐구'

노순택은 동시대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현장을 사진과 글로 진술해 왔다. 매스미디어가 구름처럼 물러든(혹은 훑고 간) 현장에서 매스미디어가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는, 하지만 사태의 '느리지만 중요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장면들을 독특한 미학적 형식의 사진으로 채집해 온 것이다. 그에 따르면 "사태의 정면만이 아니라, 뒷면과 옆면, 혹은 아랫면과 윗면을 더듬는 작업"이다. 노순택은 분단이라는 '과거사'에 집착하는 듯하지만, 실로 주목하는 건 과거사가 움직이고 있는 뻔뻔한 '현재'다. 그는 자주 말했다. "분단체제는 오작동으로 작동한다." 노순택은 세 가지 고민을 따로, 사실은 뒤섞어가며 작업해 왔다. 첫째, 세계에 대한 고민. 이 사회는 왜 이 모양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둘째, 매체를 향한 탐구. 사진은 무엇이며,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자신을 향한 질문. 나는 왜 이 짓을 멈추지 못하고 헛발질 해대며 밀고 나가는가.

사진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에 빠르게 흡수되었다. 작가는 오늘날 가장 유능한 시각매체로 꼽히는 사진에 대해 의심을 품어왔다. 특히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사진의 이면을 고민해 왔다. 아울러 사람들이 사진을 배우는 과정, 사진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에도 각별한 관심을 품었다. 이번 학교재 전시를 통해 내보이는 <검은 깃털> 연작은 노순택의 '매체 탐구' 연장선상에 있다. 흔히 역광사진이라 부르기도 하고, 실루엣 사진이라고도 부르는 특정 스타일에 관한 가벼운 매달림을 보여준다. 더불어 말하려는 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던 것은 아닌, 윤곽(검은)에 갇힌 세부(깃털)'다.

'극단주의자의 화법'으로 표현된 한국 사회의 초상화

이번 전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작업한 <검은 깃털> 연작을 중심으로 19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시각예술에서 '뻔한' 스타일로 자리 잡은 '실루엣'을 탐구한다. 실루엣은 18세기 프랑스 재정 장관 '에띠앙 실루엣'의 이름에서 비롯됐다. 전쟁으로 궁핍해진 나라 공간을 채우기 위해 강력한 긴축과 증세 정책을 폈던 그는 심지어 "그림의 재료는 검은 물감이면 모자람이 없고, 형상 또한 윤곽이면 충분하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런 탓에 실루엣은 '안 좋은 것의 모든 것, 싸구려 비지떡'의 대명사로 통하기도 했다. 사진에서 실루엣은 흔히 '역광사진'으로 불리며, 역광은 사진촬영에 있어 가급적 피해야 할 조건으로 여겨진다. 세부를 뭉개는 탓에 사진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급자 이상의 아마추어 사진가들에게 역광사진은 낭만적이고 매력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고급자들에게 역광사진의 표현기법은 뻔하고 진부한 것으로 여겨진다. 노순택은 역광사진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의 태도와 변화에 흥미를 느껴왔다. 무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가릴 수밖에 없는 사진의 모순적 본성을 역광사진이라는 특정 스타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역광사진은 농담(濃淡)이 '거의' 없다. 작가는 이를 '극단주의자의 화법'에 비유한다. 선과 악 사이의 모호함, 흑과 백 사이의 회색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주의 화법이 환영받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넉넉히 은유한다. 이번 전시작들은 멀리서 보면 단지 흑과 백으로만 보인다. 윤곽으로만 보인다. 허나 다가가면 검다고도 희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모호한 회색들이 보인다. 또렷한 삶조차도 다가서면 애매하고 모호하다. 명백해 보이는 갈등과 폭력의 세부에도 아찔한 회색이 있다. 윤곽에 갇혔다 해서, 어둠에 묻혔다 해서, 있던 게(세부) 없던 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작품 소개



〈검은 깃털 #CGK1001〉

2016

장기보존용 잉크젯 안료프린트

(좌)108x162cm, (우)108x72cm,

Ed. 1/9

키갈리



〈검은 깃털 #CGC2401〉

2016

장기보존용 잉크젯 안료프린트

162x108cm

Ed. 1/9

오쇠리



〈모순택 #CDI0501〉

2013

장기보존용 잉크젯 안료프린트

54x81cm

Ed. 1/9

제주

이번 전시는 작가의 〈검은 깃털〉(2013-2021) 연작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이다. 장기보존용 잉크젯 안료프린트의 사진 18점과 병풍 프린트의 사진 1점으로 총 19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벽면을 가득 메우는 크기의 대형 사진부터 작은 크기의 사진까지 규모가 다채롭다.

학교재 본관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검은 깃털 #CGK1001〉(2016) 키갈리가 눈에 들어온다. 작품은 아프리카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포착한 까마귀와 파리아다. 거대한 맹금류가 작은 파리 한 마리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두 점이 나란히 배치되었다. 이는 1994년 르완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종족 대학살을 은유한다. 시선을 돌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검은 깃털 #CGC2401〉(2016) 오쇠리가 눈에 띈다. 프레임 안으로 검게 피어오르는 형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봇대를 휘감은 덩굴이다. 문명의 이기인 전기, 그 전기를 잇는 관절인 전봇대가 어떤 사회적 결정에 의해 마을이 사라지고 쓰임새를 다하면서 식물에 의해 포위당한 장면을 담았다.

〈검은 깃털〉연작 사이로 눈길을 끄는 작업 〈모순택 #CDI0501〉(2013)은 작가 자신의 자화상이다. 노순택은 "누군가는 내가 일 방향의 일관된 길을 걷는다 말하지만, 아니다. 애당초 나의 방향은 한 방향도 양 방향도 아닌 사방으로 흩어지며 허우적대는 방향, 어쩌면 방향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한다. 언젠가 일기에 썼다는 한 줄. "나의 부모님 노순택을 낳으시고, 노순택은 모순택을 낳았네."



〈감 #CHM1201〉

2017

장기보존용 잉크젯 안료프린트

Archival inkjet pigment print

54x81cm x2

Ed. 1/9

삼송리



〈중간접착제 #BJI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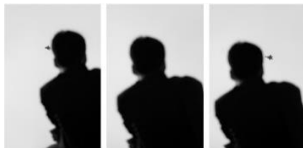
2009

장기보존용 잉크젯 안료프린트

162x108cm x6

Ed. 1/9

대학로. 야당당수들, 정세균 강기갑
문국현 그리고 노회찬



〈좋은 살인 #BJK2209〉

2009

장기보존용 잉크젯 안료프린트

162x108cm x3

Ed. 4/5

서울. F15 이글

이어서 사람의 형상을 떠오르게 하는 〈감 #CHM1201〉(2017)은 작가가 기르는 개다. 산에서 주인 잃고 헤매는 개 모녀를 거둬 키웠던 선배에게서 데려온 '새끼의 새끼'다. 감나무 아래 키워서 감, 까만 털을 가졌기에 감, 센스쟁이라서 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동선을 따라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대형 화면이 자리한다.

작품 〈중간접착제 #BJI1500〉(2009)은 대학로의 거리 연단에 올라 맹렬히 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형상이다. 2009년 당시 야 4당 '당수'들의 뒷모습을 담은 장면이다. 어떤 이는 당 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로 승승장구했다. 어떤 이는 '국회 공중부양'의 투사였다가 농민으로 되돌아갔다. 어떤 이는 미래권력의 대안으로 급부상했으나 지금은 소식이 잠잠하다. 촛철살인의 농담 같은 진담을 즐겼던 어떤 이는 고인이 됐다. 13년이 흐른 지금, 각자의 삶이 그때와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지 우리는 알지만, 그때 누가 내일을 알 수 있었을까.

'좋은 살인'은 성립 불가능하다. 형용 모순이다. 〈좋은 살인 #BJK2209〉(2009)은 차세대 전투기 F-15K를 둘러싼 갑론을박을 다룬 작품으로 어느 공군사관학교 4학년 학생을 일기에서 시작됐다. 죽음을 실행하는 자리에 앉아 '만에 하나 벌어질지 모를 실수'에 대해 사고했던 그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었는가. 노순택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 걸쳐 펼쳐지는 무기 박람회를 찾아다녔다. 그것들이 어떻게 평화와 안보의 이름으로, 관광의 이름으로, 민군 화합의 이름으로, 체험학습의 이름으로, 문화예술의 이름으로, 심지어 환경보호의 이름으로 펼쳐지는지 관찰했다.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반 발 다가가면 기괴하고 끔찍하다. 좋은 살인이란 가능한가.

4. 작가 소개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대학원에서 사진학을 공부했다. 지나간 한국전쟁이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떠들썩한 '해석잔치'를 벌이는지 관찰해 왔다. 초대형 미군기지 확장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평택 대추리에서 '황새울사진관'을 열었고, 용산참사, 한진중공업 사태, 강정마을 해군기지 강행 등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첨예한 대립과 갈등, 국가폭력의 장면들을 사진과 글로 진술했다. 2008년 독일 쿤스트페어라인 슈투트가르트에서 대규모 개인전 《비상국가》를 개최했으며, 2009년 독일의 미술전문출판사 하체 칸츠(Hatje Cantz)에서 출간한 사진집으로 '올해의 독일사진집' 은상을 수상했다. 아트선재센터, 고은사진미술관, 동강사진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학교재 등 국내 주요 기관과 영국, 스페인, 일본 등 해외 각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아뜰리에 에르메스, 캐나다 현대미술관, 가오송시립미술관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출품했다. 2012년 제11회 동강사진상(동강국제사진제, 영월), 2014년 올해의 작가상(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6년 구본주 예술상(구본주예술상선정위원회, 서울)을 수상했다. 2022년 베니스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개최한 5.18민주화운동 특별전 《꽃 핀 쪽으로》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518기념재단, 독일 F.C. 군트라흐 컬렉션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작가의 글

검은 깃털 Shades of Furs

노순택

내 몸에 난 털들이 깃털이라면, 나는 더 가벼워질까. 깃털이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슬퍼 말라 스스로를 타이른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끝내, 가벼워진 채로 흩어지고 말테니까.

시각매체 중 가벼움의 순위를 매긴다면 사진은 몇 위일까. 맨 앞이 아닐까. 빠르다. 게다가 경박하다. 더할 나위 없이 가볍다. 버튼 한 번 누르는 것으로 (아마도) 8할이 결정된다. 얇은 종이 위에, 두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입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어 명암과 형상을 이룬다. 회화의 발명가를 아는가. 조각은? 음악은? 문학은? 사진은 발명가와 발명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다. 짧다. 발명되자마자 크게 환영받았다. 자신이나 가족의 초상을 소유하는 행위가 곧 계급의 반영이던 시대에 사진술은 회화와 비교할 수 없는 저렴함으로 빠르고 쉽게 이미지의 독점을 무너뜨렸다. 장삼이사도 귀족을 흉내 낼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사진술은 똑같은 이유로 비난 받았다. 화가의 손을 무력감에 떨게 했지만, 인간의 손으로 '창

조된 것이 아니라, 기계에 손을 빌려준 짓에 불과했다. 손은 인간정신의 반영일진대, 기계 따위에 얹혀가는 손이라니, 그 따위가 무엇이란 말인가.

시인이자 미술평론가였던 샤를 보들레르는 사진을 "산업적 광기"라 부르며 그것이 예술을 넘보려는 시도에 독설을 뱉었다. "사진이 자신의 동맹군이라 할 어리석은 대중의 힘을 빌려 예술의 자리를 차지하고, 결국 예술을 망칠 것"이라 경고했다. 그에게 사진은 "언감생심 예술을 넘볼 게 아니라, 예술과 과학의 겸손한 시녀"로 돌아가야만 하는, 주제파악이 필요한 도구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진은 "기억의 아카이브에 들어가기로 희망하는 시간의 희생물들, 사멸해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소중한 것들, 망각 속으로 부서져 가는 모든 폐허들, 책들, 판각들, 원고들을 보존케 하는" 역사의 비서가 될 것이었다.

그랬던 보들레르도 사진기 앞에 다소곳이 앉아 렌즈를 응시했으니, 우리는 그를 "시간의 희생물"이라 불러야 할까, "사멸해 간 소중한 것"이라 불러야 할까. 보들레르의 얼굴은 보존되었다. 사진이라는 시녀에 의해 보존되었다. 덕분에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보들레르'와 시공을 넘어 눈맞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진술은 예술을 간보고, 깔보고, 심지어 예술 자신이 되었다. 회화를 변질시킴으로써, 새로운 회화사를 쓰게 했다. 과학과 산업과 예술의 경계를 무디게 했다. 이제 사진 없는 현대미술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으니, 이로써 예술을 망친 셈인가. 지금 당신은 밥숟가락 뜨는 횟수보다 사진기 단추 누르는 횟수가 더 많은 하루를 살고 있다. 대단한 낭비가 아닌가.

낭비를 걱정한 사람이 있었다.

사진이 발명되기 딱 80년 전, 루이 15세 통치시기 프랑스 재정장관에 임명된 그는 계속된 전쟁으로 궁핍해진 나라곳간을 채우기 위해 골몰했다. 두 가지 방법을 썼다. 하나는 증세였다. 단지 더 걷는 게 아니라, 별의 별 세금을 만들어냈다. 신선한 공기를 주신 국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야 하는 '공기세'는 살아있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었다. 오래 전 사라진 '창문세'의 부활도 모색했다. 또 하나는 긴축이었다. 극단적인 절약을 강조했다. 심지어 그림의 재료는 검은 물감 하나로, 형상은 윤곽이면 충분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이름이 형식이 된 사람, 에띠앙 실루엣. 반년 만에 물러난 단명 장관이었으나 사람들은 그를, 그의 정신머리를 오래 기억했다. 실루엣이라는 이름은 '안 좋은 것의 모든 것, 싸구려 비지떡'의 대명사로 널리 쓰였다. 오늘날엔 '검은 윤곽'이나 '밝은 배경 앞 검은 그림자'의 조형 스타일을 뜻하는 말로 통한다. 사진에서 실루엣은 '역광사진'으로도 불린다.

사진에서 '역광'은 가급적 피해야 할 조건처럼 여겨진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역광은 물체의 상을 흐리게 하므로 가능한 피해 촬영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되어 있다. 하지만 광원이 렌즈 축을 따라 직접 들어오지 않거나, 광원을 피사체 뒤로 가릴 수 있는 경우, 상의 윤곽은 뚜렷해진다. 이때 피사체의 세부는 그 안에 묻히고 갇힌다. 사람사진의 경우 중요한 세부는 얼굴과 표정인데, 역광사진은 그걸 가림으로써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한다.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사진을 대체 왜 찍는단 말인가. 고로 역광을 피하라는 '무난한 사진의 평범한 원칙'은 옳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부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인화지가 담아낼 수 있는 어둠과 밝음의 스케일을 11단계로 나눈 '존 시스템'에 입각한 풍부한 계조의 사진을 만드는 것이, 당신이 추구해야 할 '파인아트 프린트의 정석'이라 말한다. '올바른 돌'은 이 얼마나 무거운가.

역광 사진엔 농담이 없다. 아니 농담만 있을 뿐, '농담 사이'가 없다. 흑백으로 몰아붙이다 회색을 버리는 우를 저지른다. 극단주의자의 화법일까.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극단주의자들의 아무 말 대잔치에 환호하는 세상사의 풍경은 동서고금에 널려있다. 오늘 우리의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가 아닌가. 어쩌다 우리는 극단주의에 매료되었을까.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극단주의의 매력과 마력은 연구대상이다. 그것에 빠져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농담(濃淡) 없는 사진, 역광사진은 진부할까. 가끔은 질문이 대답이 된다.

광원을 향해 서고, 그 사이에 너를 두고, 너가 드리운 그늘에 나를 둔다.
셔터를 연다.

세부가 어둠에 묻혔다 해서, 세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깃털이 윤곽에 갇혔다 해서, 무게가 달라진 것도 아니다.

6.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아 오오 우우¹

김현호(사진비평가)

노순택의 사진을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느낄 때면, 2004년 그의 첫 개인전과 더불어 출간된 동명의 책인 『분단의 향기』를 펼쳐보곤 한다. 이 작고 어두운 책은 실로 분노와 절망과 울분과 조소로 가득하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어깨걸이를 하며 버티는 이들, 확성기를 들고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이들, 갑각류처럼 동그란 헬멧을 쓴 채 방패와 곤봉을 들고 까맣게 물러드는 젊은이들, 텅 빈 눈으로 그들을 응시하는 노인들,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떠다니고 있는지 모를, 그때의 축축한 열기와 함성들.

즉 『분단의 향기』는 작가 노순택을 구성하는 일종의 유전자 지도와도 같다. 한 사진가의 손과 발, 눈과 입, 머리카락과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마구 옷자라게 될 것인지, 그 뒤영킨 덩어리가 어떻게 '작가 노순택'이라는 기묘한 이름을 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가 특유의 긴 한숨을 내쉬며 걸어갈 좁고 구부러진 길의 풍경은 어떠한지에 대한 대략의 이정표가 이 책에는 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작은 연작으로 구성된 책의 두 번째 부분인 <아이들은 열네 살이었다>에 등장하는 두 소녀의 영정 사진은, 훗날 노순택이 <망각기계>에서 집요하게 찍는 광주 망월동 구묘역에 방치된 시민군의 영정들에 가닿을 것이다. 매향리 들판에서 벌어지는 주민들과 전경들의 긴장감을 찍은 사진은

¹ 허수경, <저 나비>, 『혼자 가는 먼 집』(서울, 문학과지성사, 1992).

대추리의 강제진압 장면으로 훨씬 잔혹하게 도래할 것이다. 이 책의 지면에는 <붉은 틀>, <알웃관공>, <비상국가> 등 훗날 그의 여러 문제작으로 자라날 가능성을 지닌 몇 장의 사진들이 마치 흩뿌려진 씨앗들처럼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

물론 날것의 사진 몇 장을 대면한 우리가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작가 자신에게도 가능하지 않다. 단지 우리는 짙은 안개가 드리운 과거와 현재라는 시공간 안에서 불완전한 주름과 뿌리들을 더듬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순택은 처음부터, 대체로, 어둠에 관심이 있었다.

『분단의 향기』가 말해주지 못하는 일들도 물론 적지 않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머무르는 이 세계에서 노순택이 맡은 배역 같은 것이다. 이곳에서의 그는 사진가로서는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전시에 참여하고 여러 비엔날레에 이름을 올린 작가다. 한때는 이런 이름들을 그의 정신과 성취에 대해 주어진 어떤 트로피처럼 설명하려 하기도 했었다. 그가 지녀 온 첨예한 정치성과 독특한 미학적 성취를 동시대 미술관이 인정하여 그를 주목하고, 순순히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식이었다.

분명 이런 말에는 일정량의 진실이 깃들어 있다. 과연 동시대 미술의 세계가 그렇게 정직하고 투명한 것인지를 묻는 순박한 질문을 피해갈 수 있다면 말이다. 이런 가설은 특히 거리에서 생산된 수많은 이미지들 중에서 유독 이 뒤틀린 사진들이 미술관과 비엔날레를 잇는 수로에서 아주 잘 흘러다니고 있는지 설명하고 싶을 때 잘 들어맞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후의 노순택이 찍어낸 사진들이 다큐멘터리 사진들의 가장 진화된 형태라는 언술은, 그의 작업과 사진 일반에 대해 쏟아지는 적지 않은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노순택이 보여주었던 놀라운 기예가 있다. 수천수만 대의 카메라가 존재했을 2016년 촛불집회의 현장에서 오직 그만이 찍어내는, 다른 이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이미지들이 있었다. 다른 카메라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대체로 아주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했고, 대체로 어렵지 않게 분류가 가능했다. 하지만 노순택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리듬으로 낮고 빠르게 움직이며 괴이하게 뒤틀린 시간의 단면들을 날카롭게 베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사진 속에는 하얗게 빛나는 플래시 불빛에 맞은 이들이 웃는 듯 우는 듯 알 수 없는 표정을 한 채로 동결되어 있었고, 프레임은 지나칠 정도로 빠르고 정교했다.

이런 괴이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은, 아마 노순택이 지닌 불안과 모순이 그에게 내린 착란에서 나왔을 것이다. 『분단의 향기』를 작업할 무렵, 그는 몇몇 글에서 '간단한 사실과 명확한 예측'이라는 표현을 쓰곤 했다. 이를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다. 이 끈질기고 순박한 농투성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단이다. 분단을 핑계로 고삐에서 풀려난 국가 폭력이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미국이다. 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열강들의 역학 관계다. 이것은 적지 않은 근거를 지닌 '간단한 사실'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폭력은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명확한 예측'이다. 그러나 이후의 노순택은 점점 '간단함'과 '명확함'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십여 년간 그의 글을

지배하는 구절과 단어는 대략 이러하다. '사라지는 확산, 피어오르는 의문', '불협화음', '석연치 않음', '모순', '머뭇거림'.

〈검은 깃털〉은 어떤 어둠에 대한 연작이다. 이 어둠은 검은 비단처럼 아름답거나 지느러미처럼 우리를 부드럽게 휘감지 않는다. 그저 날카롭고 예리한 파편으로, 무엇을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의미의 공백으로 프레임에 자리한다. 찍힌 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중인지 사진을 보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즉 이것은 노순택의 작업 중에서도 가장 석연치 않고, 모순적이며, 모호하다.

사실 어둠과 실루엣이 주는 낯선 시각적 쾌감을 좋아하는 이들은 대체로 아마추어 사진가들이다. 작업노트에 그가 여과 없이 썼듯이, 〈검은 깃털〉은 작가 노순택이 뿌리내리고 있는 곳이 아마추어 사진의 토양이지 동시대 미술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즉 사진적 기예에 감탄하는 것은 사실 아마추어 사진의 태도다. 이 말은 물론 아마추어 사진이나 노순택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사진의 역사는 언제나 아마추어들의 욕망과 기술적 성취에 의해 견인되어 왔다. 이 아마추어들은 카메라라는 기계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아아 하는 이들이며 때로는 그 이미지에 홀려 오오 우우 하는 이들이다.

〈검은 깃털〉은 자못 미술 전시장의 풍습에 익숙한 척하는 우리가 사진이 동시대 예술이 되기 위해 잘라서 버려야 한다고 믿던 허망한 사진적 기예의 무더기다. 이는 역광이 성립할 것인지에 대한 빠른 노출 판단, 정밀하고 날렵한 포커싱과 프레이밍, 그럼에도 잘 되지 않은 장면에 대한 후보정까지 포함한다. 동시대 미술관에 자신의 자리가 있는 작가 노순택이 그 무망한 기술들을 가장 능란하게 구사하는 모습은 웬지 우스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청량하고 즐겁다. 그도 우리도 결국 아아 오오 우우 하는 이들 사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검은 깃털〉과 『분단의 향기』를 포개어보는 것은, 노순택의 윤곽을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보는 데 유효한 듯하다. 어쩌면 지금 노순택을 이해하는 것은, 그를 경유하여 사진이 지닌 이상한 속성들을 이해하고 싶어 했던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노순택은 가장 명확한 정치성을 지녔던 초기작인 『분단의 향기』에서도 끊임없이 카메라를 돌려서 어둡고 모호한 실루엣을 함께 카메라에 담으려 한다. 오십칠 쪽의 전경들이나, 구십삼 쪽의 미군들이나, 백오십칠 쪽의 알 수 없는 여성이 그 좋은 예다.

하나의 연작이 되어 도래한 〈검은 깃털〉을 보기 전에는 첫 책의 곳곳에 삽입된 검은 실루엣들이 그저 독자에게 잠깐의 쉴 구멍을 제공하는 매체 사진가의 습관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검은 깃털〉의 존재로 인해 『분단의 향기』가 지닌 구조는 더욱 명료하고 단단해진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것은 몸에 덕지덕지 글자들을 붙인 나이 든 해병대원의 사진으로 시작해서 (작가가 백령도에서 찍었다고 주장하는) 알 수 없는 실루엣으로 끝나는 책이다. 즉 노순택은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간단하고 명확한' 것과 '석연치 않고 모순된' 것에 함께 끌리는 사진가였으며, 아마추어 사진의 기예를 통해 이 두 가지를 묶어내려 했던 듯하다.

즉 <검은 깃털>은 노순택의 한쪽 경계에 해당하는 작업이다. 반대쪽 경계에는 <애국의 길>이나 <붉은 틀>처럼 비교적 명료하고 정치성이 강한 연작들이 놓인다. 노순택은 이 경계들 사이에서 진동하면서, 정교한 사진적 기술과 섬세하게 단련된 손놀림을 통해 자신의 작업이 지닌 의미를 복잡하게 교란한다. 즉 <붉은 틀>을 대면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작가가 북한의 아리랑 집체극을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징그럽다고 생각하는지 쉽게 식별할 수 없다. <애국의 길>에서도 노순택이 제시하는 사진 이미지만으로 우리는 그가 거리의 늙은 우파들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는지 연민하는지를 알아내기란 어렵다. 그저 그 이미지에 비친 자기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만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검은 깃털> 역시 마찬가지다. 이 어둠 안에 놓인 정치적 비판 의식을 찾아내고 싶어 하는 우리는 사진 이미지 속을 오래도록 헤매게 될 것이다.

이것은 꽤 긴, 장기전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아 오오 우우 하던 우리들은 앞으로의 노순택의 작업을 궁금하게 생각해 왔다. 고통스럽지만 충분히 뜨겁지 않은 현재와, 두렵지만 지나치게 딱딱하게 굳어진 미래 사이에서 그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고, 할 것인가? <검은 깃털>은 그 걱정스러운 질문에 대한 급조된 대답이 아니라, 어둡고 오래된 실마리와 같다.

7. 작가 약력

노순택

- 1971 서울 출생
- 1995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전공 (중퇴)

주요 개인전

- 2022 검은 깃털, 학교재, 서울
 멸시, 텐투더엔, 서울
- 2018 핏빛 파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17 비상국가 Ⅱ - 제4의 벽, 아트선재센터, 서울
- 2016 시켜서 춘 춤, 43 인버네스 스트리트, 런던
- 2015 좋은 살인, 갤러리 수가타, 교토, 일본
- 2013 어부바, 서학동사진관, 전주; 류가현, 서울
- 2012 망각기계, 학교재, 서울
 실성한 성실, 동강사진박물관, 영월
- 2010 좋은 살인, 상상마당, 서울
 성실한 실성,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 2009 비상국가, 라 비레이나, 바르셀로나, 스페인
- 2008 비상국가, 뷔르템베르기서 쿤스트페어라인, 슈투트가르트, 독일
- 2007 붉은 틀, 갤러리 로터스, 파주
- 2006 알웃한 공, 신한갤러리, 서울

2004 분단의 향기, 김영섭화랑, 서울

주요 단체전

- 2022 꽃 핀 쪽으로, 스파지오 베를렌디스, 베니스, 이탈리아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 체크포인트, 쿤스트뮤지엄 볼프스부르크, 볼프스부르크, 독일
- 2021 주피터 프로젝트, 공간 힘, 부산
제1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탈리아 국가관), 베니스, 이탈리아
거리의 기술, 보안1942, 서울
- 2020 실밥 - 전태일이 여기 있다, 류가헌, 서울
시대를 보는 눈: 한국근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잃어버린 얼굴들, 뉴욕주립대학교 스톤브룩캠퍼스 찰스 B. 왕 센터, 뉴욕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 경계협상, 피멩코재단, 파리
낮선 전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메이투데이 - 민주주의의 봄, 아트선재센터, 서울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19 베르겐 어셈블리 - 사실, 망자는 죽지 않았다, 베르겐 쿤스트홀, 베르겐, 노르웨이
재난,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카운터 아트: 한국 행동주의 미학, 레드라인 현대미술센터, 덴버, 미국
바다는 가라앉지 않는다,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깃발들, 두산갤러리, 뉴욕
기울어진 풍경들 -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베니스 미팅 포인트, 베니스, 이탈리아
DMZ, 문화역서울284, 서울
- 2018 문명: 지금 우리가 사는 방법,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균열II: 세상을 향한 눈/영원을 향한 시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기억을 버리다, 예술공간 이아, 제주
멋진 신세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안녕하제,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군산
- 2017 키워드 한국미술 2017: 광장예술 - 햇불에서 촛불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소리 없는 기억,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매향리의 기억: 1951-2005년의 이야기, 화성시역사박물관, 화성
- 2016 내가 왜, 궁핍현대미술광장, 서울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아주 공적인 아주 사적인: 1989년 이후 한국현대미술과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사회 속 미술 - 행복의 나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군중과 개인: 가이아나 매스게임 아카이브, 아르코미술관, 서울
- 2015 시애틀미술관 한국현대미술전: 장소의 패러독스, 시애틀 아시아 미술관, 시애틀, 미국
광복70주년기념 북한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거짓말의 거짓말: 사진에 관하여, 토탈미술관, 서울
- 2014 올해의 작가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사진과 역사: 도큐먼트, 모뉴먼트, 메모리,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밀양을 살다, 류가현, 서울
 옥상의 정치 - 벼랑의 삶, 벼랑의 사유, 공간 힘, 부산
 강정-숨결-녹색, 수원시미술전시관, 수원
 다큐멘터리 스타일,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 2013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검은 사각형, 갤러리 101, 서울
 리얼 디엠티 프로젝트 2013: 프롬 더 노스, 아트선재센터, 서울
 미술관의 탄생_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기록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코리아 캠페넬라, 호텔 아마데우스, 베니스, 이탈리아
- 2012 제9회 광주비엔날레: 라운드테이블, 광주
 퍼블릭: 오큐파이드 스페이스,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아트센터, 토론토, 캐나다
 로드 투 12,104 마일, 팔레 드 글라스, 부에노스아이레스
 데몬스트레이션 - 메이킹 노머티브 오더스, 프랑크푸르트 쿤스트페어라인, 프랑크푸르트, 독일
- 2011 한국현대미술의 스펙트럼, 가오승시립미술관, 가오승, 대만
 추상하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움직이는 표면들: 경험, 시각 그리고 미디어, 아트선재미술관, 경주
- 2010 분단미술 - 눈 위에 핀 꽃,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리-디자인 디 이스트, 뷔르템베르거셔 쿤스트페어라인, 슈투트가르트, 독일
 미디어시티서울 2010: 신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실종, 로버트 고프 갤러리, 뉴욕
 최악의 시대, 대안공간 루프, 서울
- 2009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정치미술: 악동들 지금/여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알로곤 어페어, 학교재, 서울
 아트 인 부산 2009: 인터 시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85호 크레인 - 어느 망루의 역사, 평화공간 스페이스 피스, 서울
 플랫폼 서울 2009: 플랫폼 인 기무사, 아트선재센터 한옥 및 아트홀, 옛 기무사 터, 서울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안 익스프레스, 신 레퍼스, 하노버, 독일
- 2008 39조2항, 아트선재센터, 서울
 데일리 라이프 인 코리아, 퀸즈 갤러리, 방콕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8,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하트퀘이크, 뮤지엄 온 더 심, 예루살렘
- 2007 뽕화론 연구, 쌈지스페이스, 서울
 민중의 고통 - 한국미술의 리얼리즘 1945-2005, 반다이지마미술관, 니가타,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경기, 1번 국도, 경기도미술관, 안산
 역의 정점, 코리아나미술관, 서울
 전쟁.표.면, 평화공간 스페이스 피스, 서울
 풍경 - 멀어짐, 뷔르템베르거셔 쿤스트페어라인, 슈투트가르트, 독일
 코미컬 & 씨니컬, 던 센터, 오사카, 일본
 정치 디자인, 디자인의 정치, 국민대학교 제로원디자인센터, 서울
- 2006 아시아의 지금: 세계화와 지역성, 쌈지스페이스, 서울

- 친숙해서 낯선 풍경, 아르코미술관, 서울
- 서킷 다이어그램, 송원아트센터, 서울
- 온 디퍼런스 #2 + 미들 코리아, 뷔르템베르거슈 쿤스트페어라인, 슈투트가르트, 독일
- 2005 연접지점: 아시아가 만나다, 옛 전라남도청, 광주
- 유죄교사 김인규와 죄없는 친구들, 갤러리 꽃, 서울
- 2004 지속되는 순간들 - 오키나와와 한국의 시각, 뉴욕현대미술관 PS1, 뉴욕
- 리얼링 15년, 사비나미술관, 서울
- 금지된 상상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시장, 서울

출판

- 2022 『말하는 눈』(서울: 한밤의 빛)
- 2017 『비상국가 Ⅱ - 제 4의 벽』(서울: 아트선재센터)
- 2013 『어부바』(서울: 류가헌)
-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서울: 오마이북)
- 『사진의 털』(서울: 씨네21북스)
- 2012 『망각기계』(서울: 청어람미디어)
- 2010 『좋은 살인』(서울: 상상마당)
- 2008 『비상국가』(베를린: 핫제 칸츠)
- 2007 『붉은 틀』(서울: 청어람미디어)
- 2005 『분단의 향기』(서울: 당대)

수상

- 2016 제6회 구분주예술상, 구분주기념사업회, 서울
- 2014 올해의 작가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12 제11회 동강사진상, 동강국제사진제, 영월
- 2009 올해의 독일사진집, 독일사진집 기획단, 독일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F.C. 군트라흐 컬렉션, 독일
- 대림미술관, 서울
- 한미사진미술관, 서울
- 코리아나미술관, 서울
- 동강사진박물관, 영월
- 5.18기념재단, 광주